한국치위생학회지 2012 ; 12(2) : 391-397

치위생(학)교육과정에서의 인문사회학 교과목 탐색

문상은 · 곽정숙[1] · 김윤정

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 [1]목포과학대학 치위생과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Sang-Eun Moon · Jung-Sook Kwag[1] · Yun-Jeong Kim

Dept. of Dental Hygine, Kwangju Woman's University

[1]Dept. of Dental Hygine, Mokpo Science College

ABSTRACT

Objectives : A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received from 69 dental hygiene institutions from May to August, 2011. Categorized are introduction to dental hygiene, dental hygiene management of dental clinic, medical health law, and ethics, patient psychology, others(communication, behavioral science, administra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a descriptive analyses and x^2-test.

Results : As a result of evaluate the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dental hygiene education, 51.4% of a newly-established in between 2000 and 2006 found 2~3 courses. Credits of 4~7 was 82.4% that was found by 2~3 courses. Numbers of courses showed no differences by educational system. In college, 77.8% was in introduction to dental hygiene, dental hygiene management of dental clinic, medical health law. In university, 70.1% was in introduction to dental hygiene, dental hygiene management of dental clinic, medical health law. Ethics and patient psychology was respectively 10.8% in less than 2000, was respectively 4.7% in between 2000 and 2006, was respectively 12.5%, 3.8%. 45.5% that found ethics was in more than 2007. In college, ethics was found in the 1th~2nd(61.5%). In university, ethics was found in the 3rd~4th(85.7%).

Conclusions : It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cour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lso, It should activate the education a dental hygienist as a professional in the future.(J Korean Soc Dent Hygiene 2012;12(2):391-397)

Keywords : Dental hygiene curriculum,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색인 : 인문사회학, 치위생(학)교육과정

교신저자 : 김윤정 우) 506-7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전화 : 062-950-3845, 010-3930-1069 FAX : 062-950-3840 E-mail : tokyj@kwu.ac.kr

접수일-**2012년 3월 8일** 수정일-**2012년 4월 16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20일**

1. 서론

질병이라고 하는 사회적 일탈(deviance)은 어떤 사회에서든 존재하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질병이 필연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원활한 사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질병의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은 의료전문직은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1]. 다양한 의료전문직 중 하나인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서 치위생학을 치위생 활동의 지식 기반으로 하며 건강 팀의 통합적 구성원으로 치위생서비스(환자평가, 계획수립, 실행, 평가)를 제공하고, 환자관리의 딜레마와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윤리문제가 개입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개선하고, 평가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2]. 이러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치위생(학)과는 최근 몇 년간 신설대학 증설과 입학생의 증가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뚜렷한 개선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다[3].

국내 많은 의과대학에서는 높은 직업 자부심과 낮은 윤리의식, 집단이익에 대한 민감한 반응에 비해 부족한 대사회적 접촉면과 정치력의 미숙, 직업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변되는 모습을 전문직 인식의 위기상황으로 보고[4],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지식이 아닌 실행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강의와 실습으로 이원화되었던 교육방식도 주어진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풀어나가는 문제 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의학과 인문의학이 교과과정이나 의술의 실천과정에 적절히 결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항목에 이런 과목들의 교육여부가 포함되는 등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5].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의과대학에서 나타나는 변화처럼 전문직으로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교육과정안을 치위생교육프로그램인정기준(ASDHEP) 및 관련 단체에서 인정 규정을 제정하여 치위생(학)과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시행하고, 학과개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6]. 우리나라는 2007년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위생(학)과 교수협의회의 공동주관으로 치위생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가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치위생 교육을 인정 평가할 수 있는 기준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7]. 국내의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의 전문성을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파악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익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와 의료, 인간과 의료에 대한 성찰적인 교육과 인문학적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다[8]. 즉 단순히 지식의 습득과 봉사의 의미를 넘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의미 이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인문사회학 교육이 정립되어야 한다[9].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치위생(학)과 교육기관에 개설된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파악해 봄으로써 인문사회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치위생(학)과가 있는 79개 대학 중 홈페이지에 교과과정이 탑재되어 있는 6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3년제 대학은 48개 대학, 4년제 대학은 21개 대학이었으며, 2000년 이전에 신설된 대학은 21개 대학, 2000년~2006년에 신설된 대학은 26개 대학, 2007년 이후에 신설된 대학은 22개 대학이었다.

2.2. 연구방법 및 통계분석

수집된 69개 대학의 자료를 학과 신설년도와 학제에 따라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학점과 교과목수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문사회학의 범주는 치과위생학개론, 병원관리학, 의료법규를 기본 범주로 구분하였고, 윤리학, 환자심리학, 기타(행정학, 행동과학, 의사소통 등)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12.0을 이

용하여 빈도분석과 x^2-test로 분석하였다. 유의수준 α=0.05로 하여 p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연구성적

3.1. 각 대학의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수 비교

전국의 치위생(학)과 신설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학 교과목 수를 비교한 결과,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2~3과목 개설한 대학 중 51.4%가 2000년~2006년에 치위생(학)과가 신설된 대학이었고, 4과목 이상 개설한 대학은 40.6%가 2000년 이전에 신설된 대학이었다(p=0.037). 치위생(학)과 학제에 따른 차이는 3년제 대학의 70.3%가 2~3과목 개설된 대학이었고, 68.8%가 4과목 이상 개설된 대학으로 4년제 대학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학점을 비교한 결과 인문사회학 2~3과목으로 개설된 대학의 82.4%가 4~7학점에 해당되었고, 인문사회학 4과목 이상으로 개설된 대학의 96.6%는 8학점 이상에 해당되었다(p=0.000).

3.2. 학제에 따른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구성 비교

학제에 따른 인문사회학 교과목은 3년제 교육과정에서는 치과위생학개론이 25.9%, 병원관리학이 22.2%, 의료법규가 29.7%로 3과목이 77.8%를 차지하였고, 그 외 윤리학이 9.5%, 환자심리학이 8.9%, 기타(치과경영학, 의사소통론, 행정학,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실기교육방법론) 3.8%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교육과정에서는 치과위생학개론이 22.5%, 병원관리학이 21.3%, 의료법규가 26.3%로 3과목이 70.1%를 차지하였고, 그 외 윤리학이 8.8%, 행동과학이 6.3%, 행정학이 5.0%, 치과경영학 3.8%, 기타(치위생매너론, 치과진료와 IT, 환자심리학, 의사소통론, 사회치의학) 6.3% 순으로 나타났다.

3.3. 신설된 연도별 인문사회학 교과목 구성 비교

신설된 연도별 인문사회학 교과목은 치과위생학개론, 병원관리학, 의료법규의 3과목의 비율이 2000년 이전에 신설된 대학은 70.2%, 2000~2006년에 신설된 대학은 83.5%, 2007년 이후에 신설된 대학은 70.0%이었다. 그 외 교과목은 윤리학과 환자심리학 등이었고, 2000년 이전에 신설된 대학은 윤리학과 환자심리학이 각각 10.8%, 2000년~2006년에 신설된 대학은 윤리학과 환자심리학이 각각 4.7%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에 신설된 대학은 윤리학과 환자심리학이 각각 12.5%, 3.8%로 나타났고, 기타(치위생매너론, 치과진료와 IT, 치과경영학, 의사소통론, 행정학) 10.1%로 나타났다.

Table 1. The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dental hygiene institutions

		Number of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
		2~3	4≥	
A newly established of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efore 2000	8(21.6)	13(40.6)	0.037*
	2000~2006	19(51.4)	7(21.9)	
	after 2007	10(27.0)	12(37.5)	
	Total	37(100.0)	32(100.0)	
Educational system	college	26(70.3)	22(68.8)	0.891
	university	11(29.7)	10(31.3)	
	Total	37(100.0)	32(100.0)	
Credits of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7	28(82.4)	1(3.4)	0.000**
	8≥	6(17.6)	28(96.6)	
	Total	34(100.0)	29(100.0)	

* : p<0.05, ** : p<0.01, p-value was by x^2-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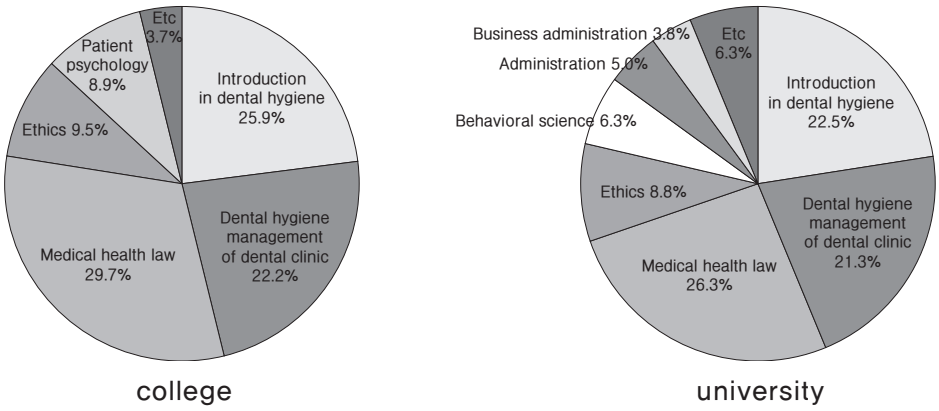

Figure 1. Composition of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y educationa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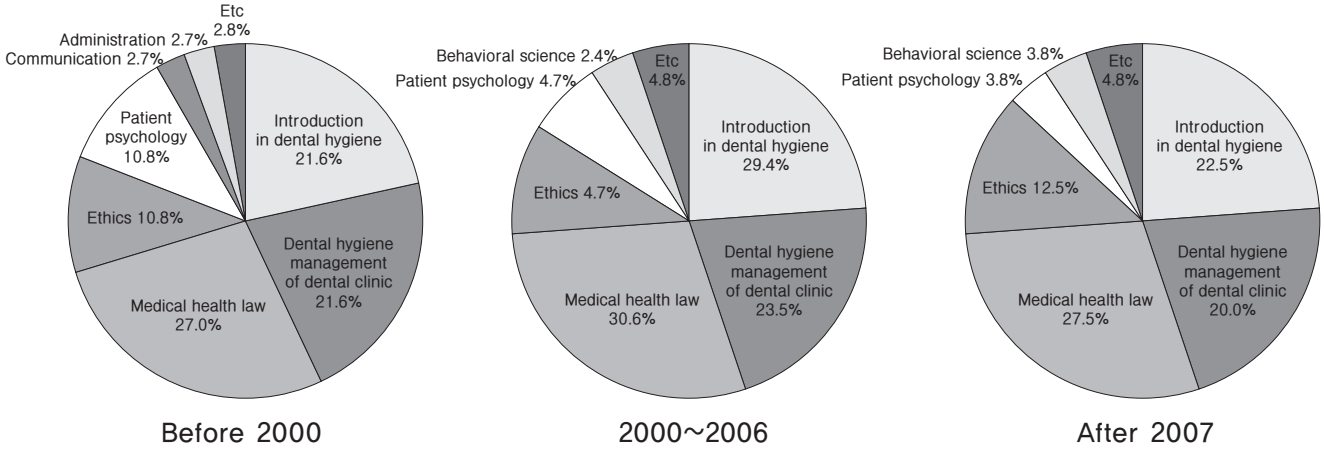

Figure 2. Composition of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y a newly established

3.4. 각 대학의 윤리교과목 개설 여부 비교

전국의 치위생(학)과 신설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학 교과목 중 윤리교과목 개설여부를 비교한 결과, 윤리교과목이 개설된 대학 중 45.5%가 2007년 이후에 치위생(학)과가 신설된 대학이었고, 윤리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은 46.8%가 2000~2006년에 치위생(학)과가 신설된 대학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64). 또한 학제에 따른 윤리교과목 개설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864).

3.5. 학제에 따른 윤리교과목 개설학년 비교

22개의 윤리교과목 개설대학을 대상으로 윤리교과목이 어느 학년에 개설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3년제에서는 1~2학년에 61.5%가 개설되어 있었고, 4년제에서는 85.7%가 3~4학년에 개설되어 있었다(p=0.043). 22개 대학 중 2개 대학은 윤리교과목이 2개 학년에 복수로 개설되어 있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4. 총괄 및 고안

의과대학에서는 수학이나 과학의 지식만을 습득한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문사회학 교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다양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좋은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양, 인성교육,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

Table 2. The classes of ethics

		ethics		p
		present	absent	
A newly established of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efore 2000	8(36.4)	13(27.7)	0.064
	2000~2006	4(18.2)	22(46.8)	
	after 2007	10(45.5)	12(25.5)	
	Total	22(100.0)	47(100.0)	
Educational system	college	15(68.2)	33(70.2)	0.864
	university	7(31.8)	14(29.8)	
	Total	22(100.0)	47(100.0)	

p-value was by x^2-test

Table 3. Ethics of grade of newly established by education system

Educational system	grade			p
	1st~2nd	3rd~4th	Total	
college	8(61.5)	5(38.5)	13(100.0)	0.043*
university	1(14.3)	6(85.7)	7(100.0)	

* : $p<0.05$, p-value was by x^2-test

해 인문사회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10].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질적인 치과위생사의 양성을 위하여 인문사회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문사회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내 치위생(학)과 69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분류하였고 미국에서 치위생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윤리교과목[6]을 추가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학제에 따른 인문사회학 교과목 수의 차이는 없었고, 2000년 이후 의과대학에서 나타난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11]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치위생인증평가원을 통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완성되어 인문사회학 교육에 기여하길 바라고, 나아가 질적인 치과위생사 양성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인문사회학 개설 교과목수는 대학 간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 이는 대학들이 아직 인문사회학 분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 이유가 있고, 이수해야 할 학점이 많고 새로운 과목을 쉽게 추가할 수 없는 교육과정 편성의 경직성[12] 또는 이를 담당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1].

인문사회학 교과목은 교육내용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크게 의료, 사회 · 문화, 철학 · 역사, 국제 활동, 법 · 윤리, 종교 및 자기개발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9],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통으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치과위생학개론, 병원관리학, 의료법규를 기본 범주로 하였고, 윤리학, 환자심리학, 행정학, 행동과학, 의사소통 등의 일부 대학에서만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과목들은 기타로 구분하였다. 특히 윤리교과목의 경우는 기본 범주인 교과목 다음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어 추가로 학제와 학년을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기존에 개설된 인문사회학 과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와 직접 관련되는 실용적인 교과목이 우선적으로 개설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의료법규의 경우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비중이 높아 모든 대학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학은 2007년 이후에 신설된 대학에서 인문사회학 교과목 중 12.5%를 차지하였고, 윤리교과목이 개설된 대학 중 45.5%는 2007년 이후에 치위생(학)과가 신설된 대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는 최근에 치과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윤리적인 문제가 치과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에게도 윤리적인 딜레마를 양산하여 교육기관에서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교육은 외워서 문자 그대로 지킬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도덕적 책임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목적이 되어 궁극적으로 자신의 도덕적 입장을 개발하고 되짚어보면서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윤리교육의 방법은 임상치과위생사들을 위한 사이버보수교육의 형태[13]와 환자사례를 통한 사례기반학습이나 워크숍의 형태로, 리서치와 읽기, 딜레마토론을 조합하거나 소그룹토론을 통한 문제 중심학습(PBL)을 권장하고 있다. 학생들 간의 동료상호작용과 교수자와 학생 간의 대화와 멘토링도 효과적인 윤리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14].

끝으로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문사회학 교육의 방법을 제시해 보면, 학생들이 인문사회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여유를 두는 방안과 방학 등을 이용하여 정규교육과정 외의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2] 또는 연극, 문학, 예술 등의 동아리활동을 통한 인문사회학적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11]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서 고려한다면 전문 인력으로서의 치과위생사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조사당시 온라인상에 탑재되어 있는 교과과정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교과과정이 최근의 교과과정인지의 파악에 있어서는 제한점을 갖는다.

5. 결론

본 연구는 전국의 치위생(학)과 개설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비교분석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상에 교과과정이 탑재되어 있는 69개 대학이었고, 자료 분석은 SPSS/PC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x^2-test로 분석되었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2~3과목 개설한 대학의 경우 2000~2006년에 치위생(학)과가 신설된 대학이 51.4%로 높았고(p=0.037), 학제에 따른 인문사회학 교과목 수의 차이는 없었다(p=0.891). 또한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학점을 비교한 결과 4~7학점의 경우는 인문사회학 2~3과목으로 개설된 대학이 82.4%이었다(p=0.000).
2. 3년제 교육과정에서는 치과위생학개론, 병원관리학, 의료법규 3과목이 77.8%를 차지하였고, 그 외 윤리학, 환자심리학 등으로 나타났다. 4년제 교육과정에서는 치과위생학개론, 병원관리학, 의료법규 3과목이 70.1%를 차지하였고, 그 외 윤리학, 행동과학, 행정학 등으로 나타났다.
3. 2000년 이전에 신설된 대학의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구성은 치과위생학개론, 병원관리학, 의료법규의 3과목을 기본으로 윤리학과 환자심리학이 각각 10.8%, 2000~2006에 개설된 대학은 윤리학과 환자심리학이 각각 4.7%, 2007년 이후에 개설된 대학은 윤리학과 환자심리학이 각각 12.5%, 3.8%로 나타났다.
4. 윤리교과목이 개설된 대학 중 45.5%가 2007년 이후에 치위생(학)과가 신설된 대학이었다.
5. 학제에 따른 윤리교과목 개설학년은 3년제에서는 1~2학년에 61.5%, 4년제에서는 85.7%가 3~4학년에 개설되어 있었다(p=0.04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위생(학)교육에서의 인문사회학 교과목은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전문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학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Byung Hee Jo. Medical problems of sociology. Daegu:Taeilsa;1999:195-201.
2. Doukas DJ, McCullough LB, Wear S. Medical education in medical ethics and humanities as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medical professionalism. Acad Med 2012;87(3):334-341.
3. Gyu Yil Choi, Hyeon sook Kwun. An analysi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dept.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0;13(3):199-220.
4. Yun Sik Kang. Professonals, stress, and satisfactional scale[Doctor's thesis]. Daegu:The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2000.
5. Shin Ik Kang. Three dimensions of medicine: natural medicine, social medicine and humanistic medicine. Philosophy of medicine 2008;6:55-79.
6. Bok Yeon Won, Mi Yeong Hwang, Suk Yeon Chun. The actual condition of operating dental hygiene curriculum between Korea and America.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0;10(6):1061-1071.
7. Mi Yeong Hwang, Yeong Nam Kim, Yeong Sun Kim, et al. Accreditation criteria on dental hygiene education. Seoul:Kore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ors;2007:6-63.
8. Yun Sik Kang. The concepts and discussions about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 Korean J Med Ethics 2010;13(3):255-261.
9. Woo Taek Cheon, Eun Bae Yang. Future of medical education and medical humanities. Seoul:Yonsei university press;2003:137-180.
10. Campbell AV, Chin J, Voo TC. How can we know that ethics education produces ethical doctors? Med Teach 2007;29(5):431-436.
11. Ha Won Kim, Hee Sun Kim, Moo Song Lee, et al. Classes of medical humain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premedical and medical colleges in Korea. Korean J Med Ethics Educ 2003;6(1):97-110.
12. Joung Hwa Kim, Kyung Won Lee. Why the medical education hasn't been changed?. Korean J Sociological Assoc 2000:34:109-134.
13. Yun Jeong Kim. Evaluation of the level of moral development of Korean dental hygienists.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1;11(2):249-259.
14. Myoung Sheen Kang, Eun Young Lee, Ah Hyeon Kim, Myong Sei Sohn, Chung Ju Hwang. Current situation of teaching ethics in dental schools in Korea. Korean J Dent Educ 2009;2(1):51-59.